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 못한다… 年 2兆 앱 통행세 ‘세이브’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애플과 구글 특정 결제방식 강제 금지
15일 내 국무회의 거쳐 공포·시행
콘텐츠 업계 “법안 본회 통과 환영”

‘인앱결제 강제방지법’이 전 세계 최초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인앱결제를 강제하던 구글과 애플의 정책이 막히게 됐다. 이번 법안 통과로 국내 콘텐츠 업계는 매년 2조원에 달하는 앱 통행세를 내지 않게 됐다.

지난 31일, 1년여간 국내 IT·콘텐츠 업계를 뜨겁게 달군 ‘인앱결제 강제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은 향후 정부로 이송돼 15일 이내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양대 앱 스토어의 인앱결제 ‘갑질’

인앱결제란 구글이나 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결제 시스템으로 자사 앱 안에서 유료 앱·콘텐츠를 각국의 결제수단으로 결제하는 방식을 말한다. 앱을 유통하는 디지털 콘텐츠 사업자는 앱에서 발생하는 모든 결제 건에 30%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88명 중 찬성 180명, 반대 0명, 기권 8명으로 통과되고 있다.

/뉴스

애플이 이번 성명을 발표하게 된 이유는 앞서 애플이 미국 내 앱 개발자들이 인앱결제 방식을 둘러싸고 제기한 소송에서 양측이 합의한 데에 따른 것이다. 이번 합의는 앱 내에서는 애플의 결제 시스템 사용을 강제하면서도 외부 결제를 할 수 있다는 걸 사용자에게 알릴 수 있다는 걸 허용했다.

문제는 합의 이후에도 개발자들은 앱 내에서는 애플의 결제 시스템만 이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앱 개발자 입장에선 인앱결제를 사용하면 여전히 매출의 30%를 애플에 수수료로 지급해야 한다.

◆콘텐츠 업계는 환영

빠른 개정을 촉구해온 콘텐츠 업계는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이다.

법이 시행되면 과기정통부 장관 또는 방통위에 앱 마켓 운영실태조사권을 부여하고, 앱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할 수 있다. 또 앱 마켓 사업자의 심사 부당 지역 금지, 앱 마켓 사업자의 콘텐츠 부당 삭제도 금지된다.

법안 통과 후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법안 통과로 창작자와 개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용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공정한 앱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앱 마켓사업자의 정책을 친 개발자, 친 사용자로 다시금 정립하여 혁신의 아이콘이었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인앱결제 강제방지법은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지정됐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1일(현지시각) 로이터에 따르면 민주당, 공화당의 상원의원 6명이 이날 ‘오픈 앱마켓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구글, 애플 등 미국 내 5000만명 이상 사용자를 가진 앱 스토어를 대상으로 한다. 앱을 유통하는 개발사들이 인앱결제 외 다른 결제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안과 내용이 비슷하다.

리처드 블루멘탈 의원은 “애플 시장에서 구글과 애플의 압도적 행위는 혁신을 억누르고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하원과 동반 입법을 조만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준혁 기자 junhyuk@metroseoul.co.kr

현대차그룹, 협력사 상생 강화

납품대금 1.2兆 조기 지급… 온누리상품권 증정

3000개 협력사 자금부담 완화 예정 지급일 최대 37일 앞당겨

현대자동차그룹이 추석을 앞두고 협력사의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납품 대금 조기 지급과 온누리상품권 구매를 통해 상생활동에 나선다.

현대차그룹은 추석을 앞두고 협력사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납품대금 1조 2354억원을 당초 지급일보다 앞당겨 추석 연휴 전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 약 216억원을 구매해 그룹사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한편, 추석 맞이 임직원 사회봉사 주간 동안 결연시설 및 소외이웃 등을 대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납품대금 조기 지급은 현대자동차·기아·현대모비스·현대건설·현대글로비스 등에 부품 및 원자재, 소모품 등을 납품하는 3000여 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협력사들은 현대자동차그룹으로부터 예정된 지급일보다 최대



37일 일찍 대금을 받을 수 있다.

현대차그룹은 명절을 앞두고 상여금 등 각종 임금과 원부자재 대금 등 협력사들의 자금 소요가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부담을 해소하는데 납품대금 조기 지급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더해 현대차그룹은 1차 협력사들도 추석 이전에 2, 3차 협력사들에 납품대금을 앞당겨 지급할 수 있도록 유도해 대금 조기 지급의 효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대차그룹은 매년 설, 추석 명절 전 협력사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납품대금을 선지급해왔으며,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에도 각각 1조 1087억원, 1조 8767억원의 대금을 조기 집행한 바 있다.

또 현대차그룹은 전통시장 활성화 등 내수 진작을 위해 추석 연휴 전 온누리상품권 약 216억원을 구매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에도 각각 285억원, 306억원의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한 바 있다.

이번 추석에도 약 1만 4800여 개 우리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임직원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임직원들이 국산 농산물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해농가 소득 증대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자금 수요가 많은 추석 명절을 맞아 협력사들의 납품 대금을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며 “이자금이 2, 3차 협력사에도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코로나19로 힘든 상황 속에서 협력사 임직원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

늘어난다.

임형석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 연령대 백신접종 확대로 경제활동이 정상화될 경우 이에비례한 기준금리 인상이 추진될 전망”이라며 “저금리에 의존해 과도한 레버리지를 도모했던 소비자는 투자위험관리와 이자부담 확대에 따른 부채관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투자위험·이자부담 ↑… 부채관리 ‘시한폭탄’

» 1면 ‘금리 오르고 대출 뚝’ 서 계속

여기에 오는 10월 기준금리 인상도 예고된 상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으나, 국내

해 더 많은 곳에서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무 효율성을 높여주는 로봇도 있다.

교촌에프앤비는 지난달 협동로봇이 도입된 교촌치킨 송도8공구점을 오픈했다. 협동로봇은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작업하면서 사람과 물리적으로 상호 작용할 수 있는 로봇이다. 로봇 전문업체인 두산로보틱스와의 협업으로 개발됐다. 올해 3월부터 5개월 간의 상용화 단계를 거쳤으며, 조리과정 가운데 2차 튀김을 로봇이 직접 하도록 설계됐다.

교촌치킨은 원육의 수분과 기름기를 줄여 특유의 담백함과 바삭함을 살리기 위해 두 번 튀긴다. 협동로봇이 진행하는 2차 튀김은 조각 성형 등 난이도 높은 과정이 수반된다. 교촌은 향후 1차 튀김, 소스 도포 등 조리 전 과정의 자동화로 로봇 시스템을 확장할 계획이다.

식당 사장님들의 일손을 줄여주는 실내 서빙로봇도 각광받고 있다.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6월말 기준 300여 매장에서 400여대가 운영 중이다. 지난 2019년 11월 렌탈 서비스를 시작한 딜리플레이트는 출시 2년여만에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면서 연말까지 450개 매장에 600대 도입을 목표로 세웠다.

업계 관계자는 “외식업계 전반에 있어 가게 운영 효율성을 높여주는 협동로봇과 서빙로봇 덕분에 품질향상에 집중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점주와 고객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로봇 관련 서비스가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